



작가 권소진이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아트사이드갤러리 개인전 ‘제비가 낮게 날면’에 건 자신의 작품 ‘새들은 바람을 등지고 1·2’(2026, 각 130×194cm) 가운데 섰다. 신작 27점을 내건 개인전에서 작가는 ‘무엇이 진정한 것인가’를 묻고 거짓처럼 보이는 정물·사물에 진정성 있는 붓질, ‘가짜에게 들이대는 진짜’로 답을 찾아간다.

가짜를 흉내 내는 진짜... 세상풍경을 의심하다

권소진, 아트사이드갤러리 개인전

그림 한 점이 벽에 걸려 있다. 키를 키운 나리꽃 주위로 벌이 날아다니고 하늘에는 새들의 날갯짓이 화려하다. 사실 대단할 것 없는 흔한 풍경이 아닌가. 그런데 이 흔한 것을 흔치 않게 만드는 한 가지가 있으니. 꽃, 벌, 새가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듯하다는 거다. 손끝을 슬쩍 갖다 대면 오통도통한 돌기처럼 만져질 듯 말이다. 이쯤 되면 그림 밖에선 웅당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맞아! 꽃이고 새고 다 이미지를 따서 캔버스에 붙인 거야. 찢어진 종이자국 보이지? 아예 대놓고 테이프로 붙였네.”

여기까지는 아무런 의심이 없다. 콜라주로 완성한 회화작품 한 점을 봤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이다. 그나마 그대로 돌아서지 않고 사실 확인을 위해 성큼 다가서면 다행인데. 코를 박을 만큼 그림 앞에 바투 서자 웬걸,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가 있다. 그림 조각을 붙여 큰 그림을 만들었다는 확신이 들어졌으니. 꽃이고 벌이고 새고, 거기에는 찢긴 종이며 테이프까지 모조리 붓으로 그렸다는 것을 직접 봤으니까. “아, 붓으로 그린 거였어? 가짜였구나. 깜박 속을 뺐했네.”

자, 이 장면까지 다 지켜보고 나면 말이다. 슬슬 헛갈리기 시작한다. 이 그림에 ‘가짜’란 게 있었나? 가짜가 있다는 건 ‘진짜’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지?

따져보면 그렇다. 그냥 그림 한 점이 있을 뿐이다. 정원풍경이고 하늘풍경이기도 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구성, 정갈하고 깊게 그려낸 선, 서정적이고 담백한 색이 단박에 시선을 끄는 그림 말이다. 문제가 있다면 기가막힌 묘사에 있단 얘긴데. 결국 이 상황의 맥락을 정리해보면 ‘내 생각과 맞으면 진짜’가 되고 ‘내 생각과 다르면 가짜’가 되는 거다. 정작 그 실체가 실재인지 허구인지와는 무관하게.

그림 안팎에서 벌어진 이 소란스러운 ‘세상풍경’을 덤덤하게 바라보는 이가 있다. 작가 권소진(35)이다. “의도한 일이다. 그렇게 보이려 한 작업이고.” 어차피 그림인데도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하는 이상한 시비를 예상했다는 말이다. 작품 하나 꺼내기도 빠듯한 작가의 손이고 붓이 아닌가. 그 속에 ‘행간’을 넣을 여유가 있었나.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을 좇는다. 인생, 사랑, 꿈 같은 것들. 그런데 어느 순간 ‘진정한 것이 아닌 게 뭐가’ 싶더라. AI니, 딥페이크니 사실보다 더 진짜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세상이다. 이젠 그저 가짜를 판별해낼 뿐 진짜란 게 무의미해진 거 아닌가.”

붓이다 시켰다. 찢긴 종이·테이프 자국까지 의심하라고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아트사이드갤러리에 꾸린 작가의 개인전은 진실만을 좇는다고 확신하는 세상풍경에 내놓은 진동이고 균열이다. 신작 27점을 내건 개인전 타이틀은 ‘제비가 낮게 날면’. 자연현상에 관심이 있다면 알고 있겠지만 ‘제비가 낮게 날면’에 뒤따르는 상황은 ‘비가 온다’다. 작가 작업의 힌트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보이는 것만 진실이 아니라는 것, 시선을 키우면 더 큰 세계가 자리잡고 있다는 거다. 지금껏 작업은 작가가 끊임없이 품어온 질문 ‘우리는 무엇을



권소진의 ‘제비가 낮게 날면’(2026, 181.8×227.3cm·위). 걸개그림인 양 공기층을 머금어 우글쭇글글한 천의 표면까지 살려냈다. 아래는 ‘제비가 낮게 날면’의 부분인 하단의 새 형상이다. 구겨진 종이에서 오려낸 흔적, 고정한 테이프까지 붓과 물감으로 살려냈다.

손으로 찢은 듯한 종이에 노란 테이프 자국까지 콜라주처럼 보이는 꽃·새 등 정교한 붓작업으로 AI·딥페이크 등 ‘더 진짜 같은’ 세상풍경에 균열

거짓처럼 보이는 정물·사물에 진정성 있는 붓질
시각적 반전 넘어서 인식의 반전 내보인 27점

그림으로 보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었다. “사실보다 사실 같은 이미지가 넘쳐나는 이 시점에 그림을 그려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봤다. ‘뭐가 그림이 될 수 있는가’를 스스로 물었던 거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을 알게 됐다. “그림이 그림이 되는 건 내가 어떻게 그리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결정되더라.”

그렇다면 이 생각과 고민을 작가는 어떻게 작업에 연결시켰을까. 먼저 오래전 기억을 들춰냈다. 어린 시절 한 번 본 뒤 20여 년을 철석같이 믿었던 ‘벌새’가 그중 하나다. 그 벌새의 본래 정체가 ‘벌새인 척하는 나방’이란 것을 우연찮게 알게 됐다는

데. 허무한 믿음을 끌어안고 산 지난 세월이 허탈하지만 벌새는, 아니 나방은 작가 작업에 당당히 주역을 꿰찼다. 진짜와 가짜를 넘나드는, 아니 진짜와 가짜를 헛갈리게 하는 매신저로.

이후 가속이 붙었다. 바로 그 벌새처럼 진짜를 흉내 내는 가짜에 착안한 거다. 누가 봐도 가짜라고 믿을, 종이에서 오려낸 듯한 꽃이나 새를 화면에 올렸다. 손으로 거칠게 찢어낸 흔적, 이미지 조각을 붙인 테이프까지 정성스럽게 붓으로 그려서 말이다. 거짓처럼 보이는 정물·사물을 작가는 진정성 있는 붓질로 만들어낸 거다. 그렇게 가짜에게 들이대는 진짜로, 중국엔 우리가 봐야 하는 게 무엇인지 넌지시 일깨워준다고 할까.

이번 개인전에선 그간의 작업을 정점에 올린 듯한 대작이 여러 점이다. 어린 시절 옛집의 ‘벽지 속 벽지’를 통해 봤던 시간의 흔적을 ‘캔버스 틀’로 옮겨와 굵직한 나무틀뿐인 그 뒷면에 풍경으로 묘사하고(‘구름 벽지와 드로잉’ 연작, 2026), 앙상한 나뭇가지가 그려진 천 위에 낮게 나는 제비들의 날갯짓을 붙여내기도 했다. 걸개그림인 양 공기층을 머금어 우글쭇글글한 천의 표면까지 살려낸 트릭은 덤이다(‘제비가 낮게 날면’ 2026). 작가 작품에 시그니처처럼 등장하는 나리꽃을 배경으로 벌과 새가 시공간을 점으며 비상 중인 작품도 있다(‘새들은 바람을 등지고’ 연작, 2026).

‘학습된 진정성’에 대한 반감에서 출발

2018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횡수로는 6회째다. 하지만 상업갤러리를 통해 컬렉터를 본격적으로 만난 건 채 두 해가 안 된다. 지난해 2월 16점을 내건 아트사이드갤러리 개인전이 그 시작인데. 시장의 반응이 빨랐다. 하긴 전시장 마룻바닥에 던져놓은 그림은 마치 바닥의 나무판자가 뜯겨 나간 듯했고 그 속에 푸른 하늘을 품은 벌새가 파닥거리고 있었으니(‘구름의 비밀’ 2025). 콜라주나 회화나 했던 그 실체를 올해 초 화랑미술제에서는 ‘입체설치’로 제대로 내보이기도 했다. 단독부스를 꾸리고 관람객의 온갖 의심에 작품으로 대답한 거다.

작가 작업에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가를 찾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 콜라주를 진짜라고 믿으면 회화는 가짜가 되고, 회화를 진짜라고 믿으면 콜라주는 가짜가 되니까. 결국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잣대는 보는 눈이 그어놓은 보이지 않는 선이란 거다. 그러니 환상적인 풍경을 보면 ‘그림 같다’고, 실재와 똑 닮은 그림을 보면 ‘사실 같다’고 하는 게 아닌가.

좋은 그림, 틀에 박힌 트렌드, 학습된 진정성. 이런 ‘고정’에 대한 반감에서 출발했나 보다. “캔버스 안에 들어 있으면 다들 그림이라고 믿어버리지 않느냐”고, “그 인식에 반전을 주고 싶었다”고 하니. 그래 맞아. 작가의 그 ‘반전’이 하나 더 있다. 이젠 모두가 붓 작업이라고 믿을 전시작 중에 실크스크린으로 인쇄한 벌을 몇 마리 숨겨뒀으니 말이다. 차라리 그리는 게 편했을 텐데도 굳이 한 단계 더 거친 ‘튀는 대상’을 일부러 쫓아둔 건데. 또 한 번 믿음이 들썩일 그 ‘그림 같은 프린트’를 찾아냈을 때 과연 우리 또 뭐라고 말하게 될 건가. 전시는 8월 8일까지.

글·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euanoh@